

〈행가람 큰모임〉 우리의 인생이 더욱 풍성해 지도록...



지난 4월 27/8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행가람)의 큰 모임이 진새골 사랑의 집에서 있었다. 늦은 밤 11시 30분까지 20여쌍의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조별로 흠어져 모임을 가졌다. 평일 저녁에 서울을 떠나와 멀리 경기도의 한적한 곳에 모여 구역공부를 하니 한층 더 운치 있고 서로 열린 마음으로 나눔을 가질 수 있었다. 참석자들은 결혼 후 인생의 높낮이 언덕을 지나며 부부가 하나 되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서로 격려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정원에 흠어져 부부별로 큐티를 하고, 오후까지 한적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부부별로 오붓한 데이트의 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행가람 큰모임은 김철해/이

상옥 부부의 간증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에 갈망하였던 지난 시간들과 가정 사역팀에 합류한 후의 변화 등을 전했고 특히 끝 부분에서 눈물의 고백은 여러 형제자매의 콧등을 찡하게 했다.

이어 장신대 영성신학 교수인 유해룡 목사님을 모시고 "영혼의 친구 부부"라는 주제의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결혼,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는가? 등 근원적 주제로 시작된 강의는 우리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생의 배필이며 서로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서로 성장하며 일치를 이룰 수 있고, 부부간의 영적 동행 및 성장,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및 순종을 통한 우리의 행복이 차고 흘러 넘쳐 주위의 다른 형제자매들께도 행복이 전염되어야 한다는 말에 강조점을 두었다.

행가람 큰모임은 두 달마다 열리는데 여러 부부들이 동참하시길 적극 추천한다. 한 번의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욱 풍성해 질 수 있기에...

(기사제공: 권주리집사, 3-9)

(4교구 믿음 구역 제주도 여행 후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리라고...



누구나 세상을 살며 서로 나누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산다면 특히 장애인을 만날 때 약간의 이해와 마음의 통로를 열고 마음의 대화를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구역 청각장애우들이 4월 28일과 29일에 신화식목사와 같이 제주도에 다녀왔다.

제주도에서의 여행은 모두가 즐거웠다. 모처럼 바닷가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바위에 올라가 무언의 소리를 하늘에 외쳤다. 여러 모습의 사진을

카메라에 담아보기도 했다. 또 제주도에서 청각장애우 목회 사역 하는 장애인 목사님도 만나 인사도 나누고 말씀도 들었다.

성산 일출봉에 올라 해가 떠오르는 곳을 바라보며 "저 곳이다!" 하며 하늘에 소리를 쳐본다. 소리는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리라 믿으며...

매주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 작은 믿음을 가지며 조그만 방에서 작은 수가 모이지만 만나면 항상 즐겁기만 하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한 울타리로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 약간의 관심으로도 쉽게 얻어지는 하나님의 행복을 느껴보고 나누어 보기를 바라본다.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 오는 길, 그들에게 여행의 추억을 남겨주려는지 비가 내렸다. 비록 빗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신형섭 기자

안수집사회 정기 세미나



4월29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2007년도 안수집사회 정기 세미나가 3층 초 등부실과 구내식당에서 개최되었다. 50

명의 회원 중 37명이 참석하였으며, 부인들도 16명이 함께 하였다.

1부 시간에 안수집사회 김동일회장의 사회로 찬양과 기도(박중규부회장)후에 참석한 회원들의 소개시간이 있었다. 각 부팀장으로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회원들은 더욱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첫째 시간에는 본 세미나 주제인 「나는 누구인가. 누구이고 싶은가」라는 주제로 안수집사회 담당교역자인 이창현

목사의 강의를 있었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안개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녕 함께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에 이해된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반문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업가, 직장인 그리고 모든 인생들은 참으로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사시기에, 옛사람의 의지는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새 의지가 일어나며, 그들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둘째 시간에는 청년부 김정희 자매의

지도로 무지개축제에서 공연할 댄스를 준비하였다. 경쾌한 복음송에 맞춰서 스텝을 밟으며 땀나도록 신나게 연습하였는데, 연습시간 내내 건강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강의가 끝난 후, 구내식당에서 식탁교제를 하였는데, 특별히 교역자들과 가족들이 함께 하여 즐거움은 더하였다. 다음 모임은 6월에 있을 신임 안수집사 임직 후에 환영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기사제공: 김창안 안수집사)

특집 목양사역본부, 추가기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_목양 사역본부

교회역사자료보존팀

이제 성인이 되어 가는 주님의교회는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걸어온 길을 정리하고 기록해야 할 필요를 실감하고 있다. 체계적인 기록과 분류, 평가와 보존 등의 문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배성은 집사를 팀장으로 운영되는 교회역사자료보존팀은 지난 한 해 동안 이러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왔다. 앞으로도 ①전년도 생산된 기록물 수집 및 정리 사업 ②서가실 완성 ③현용기록관리체계 구축 ④교회 기록물 활용방안 모색을 통해 중요기록물을 선별하여 교회사 편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팀장 배성은 집사

양육사역팀

주님의교회 양육과정은 봄과 가을 1년에 2번 신앙과 문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한다. 이 과정은 믿음의 기초와 교회생활의 안내, 성경의 이해, 말씀의 실천, 복음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별히 일부 과목은 교회에 낯선 이웃에게 복음 전파



팀장 노봉옥 권사

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100 과정은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의미와 방법을 알아가며 200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이해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됨에 목적이 있고 300 과정은 성경의 지식을 삶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신앙 훈련으로 사역자로 공동체를 섬김에 목적을 두며 400 과정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낯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목적을 둔 과정이다.

양육사역팀을 맡고 있는 노봉옥 권사는 교역자들은 물론 장남희(은혜로운 먹그림), 최진옥(생활꽃꾸미), 정도일(말씀서예), 함혜련(생활공예 두루뭉수리), 최영숙(기초반주법), 김경순(컬트이야기), 최재호(사진학교), 최영숙(사진학교), 신영숙(일본어성경), 김광일(그리스도인의 정신건강), 손영익(선교학교), 집사/권사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양육사역팀이 운영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가정사역팀

가정사역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감탄



팀장 노봉옥 권사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모든 가정 안에서 제창되기를 소망하며 시작된 사역으로 역기능 가정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따라 서로를 격려하고, 더 깊은 부부의 친밀함을 개발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소망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역의 방향으로는 작은 모임을 통해 부부의 삶을 공개하고, 다양한 부부관계이론을 학습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 나누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실제 각 개인의 가정이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정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현재 4개조로 운영 중인 이 소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서 큰 모임을 2달에 한번씩 가지며 좀 더 전문적인 강사를 통해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도 있다. 이 큰 모임은 교회를 대상으로 일반 가정을 초청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개발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역이다.

가정사역팀원들은 소그룹 활동과 병행하여 아버지 학교와 부부학교 등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참석을 권면하고 있다. 가정사역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부부 단위로 누구나 가정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1서 4:9

통 권 _ 제 207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7년 5월 13일

함즐함울

www.pcltv.org

무지개축제 3부, 대예배실에서 열린 "무지개의 사랑"에 참여한 온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공동의회, 박원호목사를 위임청빙하기로 결의



박원호 목사

주님의교회는 제4대 담임목사로, 박원호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것을 결의하였다.

지난 4월7일 4월 정기당회에서, 담임목사청빙위원회가 박원호목사를 청빙키로 결의한 것을 설명하고 당회에 상정하였고, 이에 모든 당회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교회

법의 절차에 따라, 4월18일 수요일예배후 제직회에서 제직회의 결의를 얻었으며, 4월29일 주일 3부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의함으로써 사실상 교회법적인 모든 절차를 마쳤다.

박원호 목사는 2003년이후 현재까지 미국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 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경력으로는 장로회 신학 대학교 교수 (1999년 10월 - 2000년), 아름다운 교회 (Bethpage, N.Y) 동사무사 (2000년 8월 -2003년 2월), 프린스턴 신학 대학 초빙교수(1999년 9월- 2000년 2월), 나이지리아 개혁 대학 신학 대학(Reformed Theological College of Nigeria) 초빙 교수(1994년 12월-1995년 5월), 장로회 신학 대학교 부교수 (1994년 9월-1999년 9월), 장로회 신학 대학교 조교수 (1989년 9월-1994년 9월)를 역임하였다.

학력으로는 Union Theological Seminary & Presbyterian School of Christian Education에서 중

교교육학박사 학위(Ed. D)를 수여했고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석사(Th. M in Christian Education),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 Div.)과 계명 대학교에서 수학했다. 이창현목사

제5회 정립음악회 개최

복지사역본부 장애인사역팀은 가족의달을 맞아 장애인산업시설인 정립전자에서 제5회 정립음악회를 개최한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주님의교회 출석 장애인과 그 가족을 초대해서 음악과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음악회는 살롬찬양대 이동훈지휘자가 맡고 있는 캔티클 합창단이 공연을 하게 된다. 캔티클 합창단은 음악전공인들로 구성된 연주팀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창단되었다. 여, 남성, 혼성 합창단이 각각 있으며 아름다운 노래와 찬양을 위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연주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복지사역본부 장애인사역팀 신형섭집사(019-628-7957)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정애 기자

제5회 정립음악회

일 시: 2007년 5월 14일(월) 오후 6시 10분
장 소: 정립회관 강당

나의신앙이야기 _ 김한중

2면

특집, 무지개 축제

3면

로 템 나 무

어머니, 나의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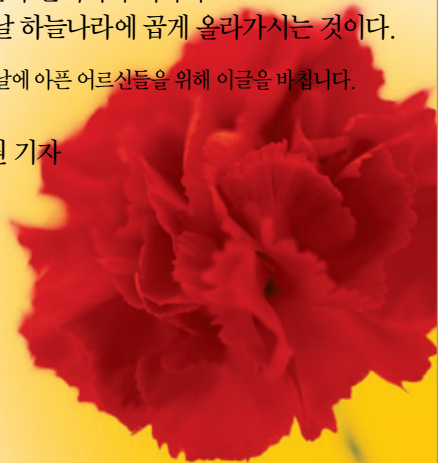
어제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자당께서 달라지셨다는 얘기가.
전화를 안하면 왜 안하냐고 짜증이시고,
전화를 하면 투정하신단다.

고등학교 때 뵈었던 그 분은 내게 충격적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쪽머리에 한복만을 입었는데,
검은색 양장에 뽀족 구두를 신으시고
영어선생님과 영어로 대화를 했으니 말이다.
그 뒤로 세련된 어르신 하면
나는 항상 친구 어머님을 떠올렸었다.
그러나 30년의 세월이 흐르자
과거의 그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그 분도 우리 어머님과 똑같이 늙으셨다.
등은 약간 휘어지시고,
무릎의 신경통을 호소하시며,
자주 चे하시고,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셨다.

나의 어머님!
마늘밭에 새순이 쏙오르는 것을 좋아하시고,
염소에게는 회초리를 대시더라도
검둥이만큼은 지극히 아끼시는 나의 어머님!
지금은 거동을 못하여 방안에 누워 계신다.
그분의 소박한 소원은
아버님과 같이 주무시다가
어느 날 하늘나라에 곱게 올라가시는 것이다.

어버이날에 아픈 어르신들을 위해 이글을 바칩니다.

하태원 기자



담임목사 청원을 위한
세례교인서명

1층 로비에서 담임목사 청원을 위한 세례교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은 교우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월 30CUP
찬양예배

“아주 특별한 자격”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행5:41)

5월 20일 주일 오후 3시 30분 대예배실

예배의 현장 (4월 15일 2부 대표기도)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듣고 만져주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순이 돋고, 천지가 봄꽃으로 피어나는 부활의 새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과 깊은 어둠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와, 부활절 신앙사경회를 통하여,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늘사랑과,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눈물로 통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묵상하고 결단하는 참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쓰러지며, 한 걸음 한 걸음 갈보리 언덕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어 느끼셨을 절대 고독의 떨리는 음성 들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절대순종 앞에 눈감으시고, 찢어지는 아버지 가슴의 통증도 느껴집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관용과 겸손과 순종을 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며, 복음의 확신으로 세상의 우상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오직 복음의 일꾼 되게 도와주소서.

말씀, 기도, 사랑을 통한 바른 영성의 삶으로 하늘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값없이 주신 성령의 은사, 허락하신 생명과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구상에서 유일하

게 분단국인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위정자들이 통치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선하신 아버지 뜻에 합당한 나라로 경영하게 하옵소서. 나라 안과 밖의 악을 제거하고,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로지 공의와 선을 행하므로, 통일을 이루고 온 나라가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넘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의 빛이 북한에 비추어 그 땅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주시길 믿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시어 주님의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의 때에 맞추어 대언자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목자 잃은 양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기도로 간구하는 저희의 갈망을 들어주소서, 오랫동안 예비하고 세워주신, 새 목자를 보내 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실 목사님을 맞이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과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주님의 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 모형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민족을 살리는 인물을 길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 열납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세윤 안수집사

오늘 기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구리살롬의집 방문)

우리가 함께 하는 모두의 세계를 바라며...



5월6일(일) 가정의 달을 맞아 기관 선교팀과 2-9구역식구, 고등부 학생들이 이 중증 정신지체, 정신질환 환자들이 공동거주하고 있는 구리 살롬의 집에 방문했다.

구역식구들이 살롬의집 곳곳을 청소하였고 이성균집사는 장애인 모두의 시력을 측정해 안경을 맞춰주고 선

글라스를 선물했다. 고등부에서는 유성훈전도사와 2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합창과 기도와 다과를 나누었다. 서로서로 손을 잡고 그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에게 다른 사소한 병에 걸리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도 함께 했다. 기관선교팀에서는 주님의 교우들이 정성스레 모은 나눔의 물품을 전달했다.

참석한 한 학생들은 처음으로 해보는 복지관 방문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찬송하며 기도를 하니 또 다른 세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오고 싶은 중증 장애인들, 그들만의 세계가 아닌 그들과 우리가 함께 하는 모두의 세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형섭 기자

나의/신/앙/이/야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난 주간 무지개 축제가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5월의 날씨가 더욱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무지개 축제! 저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제2회 무지개 축제 때 큰 상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 되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과연 MVP? 반신반의 하면서도 몸은 벌써 무대를 향하여 달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과

분한 상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은 [부부건강검진권], 우리 부부는 그 크나큰 상을 앞에 놓고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상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신 것 아닐까? 연로하신 장모님과 어머님께 한 번 효도하라는 주님의 뜻인가보다 생각하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는 그 분들은 그래도 가끔 병원 출입을 하니 시골에 살고 있는 저의 둘째 동생 내외를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의견일치를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8월 농사 마무리를 하고 검진 예약일자를 잡아 종합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저희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제 남동생이 간

경화와 간암 초기의 진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 모친께서 간경화로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항상 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는데 제 동생에게 그 병이 오고야 말았다는 생각과 평소 그렇게 종합검진을 권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은 동생이 한없이 미웠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갈 때도 순서대로 가자하고 말입니다.

저는 동생 일 인데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자식을 앞세운 부모님들 그 애꿎은 심정 어디에 하소연 하겠습니까? 가슴에 못이 박힌다는 말 이해가 가더군요. 저는 즉시 교회 중보기도 팀에 중보기도 의뢰를 하고 우동운 교구 목사님과 구역 손천숙 권사님을 비롯한 구역식구들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드렸

습니다. 그 후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경과가 좋아 3개월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는데... 지난 4월 말 검사결과 암이 재발했고 곧 색전술을 시술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무지개 축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휴지조각같이 쓸모없는 저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제 동생에게 까지도 은혜의 손길을 퍼주셔서 생명 연장을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엄치없는 바람이지만 제 미운 동생이 완치되고 예수님을 하루라도 빨리 영접해서 저희 가족들이 예수님만 섬기는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여러분의 중보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김한중 안수집사



2007 무지개축제의 함성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은 주의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편 89편15절)



1. 줄넘기를 넘고 있는 하양팀과 무지개사진관에서 포즈를 취하는 성도들
2. 방과후 학교가 제작한 “믿음의 과자집”
3. 특수을 맡은 길가에교회 어린이들과 이인호 담임목사

아침 일찍부터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분주했다. 지난 3월 10일부터 축제를 준비해온 축제준비위원들의 기도소리는 더욱 높았으리라. 모두가 벅찬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운동회를 준비한 설렘으로 정신여고 운동장은 점점 식구들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노랑, 빨강, 하양, 파랑 색색의 셔츠를 입은 성도들의 가슴에는 성령의 무지개를 띄웠다.

8시경 5층 당회실을 방문했다. 교회 장로님들이 축제 진행 일정에 논의를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간 4층에서는 위십 댄스 팀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다. 지하주차관리실에서는 청년부원들이 “리조이스(예수 좋은 내 친구)”라는 컨셉으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열심히 성가를 연습하고 있었다. 운동장에는 목사님과 안수집사님들이 행사진행을 위해 바쁘다. 차량을 안내하고, 명찰을 달고, 쿠폰을 팔고, 음식을 준비하고, 무료커피를 준비했다.

대회 준비위원장인 김경신 장로는 “본교회 축제의 한마당은 올해로 5년째 되는데 이는 단순히 즐기는 유희가 아니라 성도간의 코이노니아*이며 예루살렘교회와 같은 섬김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출발부터 우리자신을 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를 따르는 성도를 섬기며 서로 교제하고 성숙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주님의 교회인만큼 성도 각자가 자신의 맡은 부서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축제를 즐길 것”을 주문했다.

운동장에서 행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아이들은 이벤트를 위해 열심히 확인 도장을 찍기에 바빴다.

축제의 총괄을 맡고 있는 김용일 안수집사는

성도 각자가 자신의 맡은 부서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축제를 즐기자!

이번 축제의 성격은 모든 계획과 실행은 어느 한사람이나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

라 모든 안수집사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행사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왔다고 한다. 김집사는 34쪽의 축제 계획서를 보여주며 축제 8주전부터 기도하고 부서별로 협조를 구했다고 했다. 안수집사들을 팀장으로 삼았으며 교구목사님들에게는 교인들에게 행사참여를 유도하고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했다. 올해 집행된 예산은 약 3천 5백 만원으로 행사를 거듭하면서 점차적으로 경비를 줄이고 있으나 “어린이날이”이라는 특수에 장비를 임차해야 하는 필수경비의 소요로 인해 비용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말했다.

이번 행사를 지켜보던 박헌욱집사는 “어린이와 어르신이 함께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라며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축제의 의미를 평했다.

무지개 축제는 어린이날 행사를 넘어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교회의 큰 잔치날이다. 해를 거듭함으로 그 의미를 더해갈 뿐 아니라 놀이문화의 부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에 좋은 대안과 모델을 제시해 가고 있다고 자부해 본다.

축제는 끝이 났다.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축제를 통해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사랑은 우리 맘속에 소중히 간직되었다.

사진:노수연 집사, 취재:하태원 기자

* 코이노니아: 친교를 뜻하는 희랍 원어. 같은 뜻을 지닌 성도의 교제, 교통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